

크스님 수행한담

전체 살리는 길 열려요”



70년 10월 13일 청담스님(사진 중앙)주재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지도자대회에서 능가스님(사진 왼쪽)은 회장에 피선됐다.

설하신 법문의 핵심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한 이후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아야 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정법이 사범으로 굳어져 버린 경향이 짙습니다. 이럴때는 불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불교는 원래 인연법이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면 인연에 없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없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부처님전에 보시금 갖다 놓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대처승과 싸워 이겼으니 다음에는 불교를 빛나게 하는 산신각을 불태워 없애자고 운동을 벌이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신각을 받들면서 절에서 자란 스님네들이 대부분이니 스님들 스스로가 동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리가 없지요. 결국 다수에 의해 양적으로만 팽창했지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질의 세계이지 양의 세계가 아닙니다. 양적 세상에 흥정 타협이 있지

전체가 나아져야 내가 나아지니 올바른 법을 들었으면 이웃에 늘 전해주어야 합니다 불자에게 전법은 사명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은덕으로 돌려야 합니다. 제불호념(諸佛護念) 즉 일체 부처님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를 갖는다는 마음과 십중덕본(十衆德本) 모든 중생들에게 두의 근본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근본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법문을 들으면 다른 이에 게 자주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체가 나아져야 내가 나아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를 향해 정법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법을 들었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러 업때문에 장애가 많더라도 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정도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불려심이 없는 믿음으로 정진 또 정진하고 실천 또 실천하다보면 바로 전체를 구하는 길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았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내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것도 바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산스님은 마치 불교정화와 종단 안정을 위하여 마지막 정성을 다 바치는 분같았습니다. 나는 늘 상 이 나라 불교의 앞날을 걱정해 마지막이었으면 동산스님의 모습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총무원 사무처장을 맡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심 나는 종단일 보다는 산사에 남아 수행에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종단일의 중요성과 그 일에 성심을 다 할 수 없는 마음상태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심사숙고하던 끝에 스님을 찾아뵙고 모든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내가 말씀드리려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는 타이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화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장차 이나라 불교는 어찌될 것인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종단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라"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당부대로 나는 임기동안 흠여지는 맘없이 종단일을 소임으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스승을 잘만나라는 조사들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살았으면 숙된 표현으로 집에 재산도 많았고 교육자도 성공해서 지금쯤 총장도 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치쪽에 발들여봤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출가한 뒤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친척아저씨가 나를 맞반이나 설득하러 왔어요. 그때마다 지리산으로 도망을 했지요. 결론은 출가하길 참 잘한 일입니다. 망상과 겁대기뿐인 생활에서 구제된셈이니까요. 또 이 길을 걷게 된 그 가피를 회향하는 것은 <법화경>을 여러 분에게 전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세상에 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이 불교의 진리에 맞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개인의 기복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고, 개인중심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체 우주를 향하는 사고로 대전환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생활속에 불법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법을 퍼는 일임을 명심하면서 일상을 꾸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부모은중경



현진 청주 관음사

해인사 학인시절, 장경각 안내소임을 본일이 있다. 해인사를 찾는 신도들이나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사찰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일이었는데 법당 벽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소임의 일부이었다. 그때 벽화의 유래에 관한 자료를 읽다가 처음으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독송하게 되었고 세삼 보은인연(報恩因緣)의 지중(至重)을 느낄 수 있었다.

해인사의 여러 벽화 가운데 부처님이 해골더미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리는 장면이 바로 <부모은중경> 서분(序分)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장면에서부터 보은의 법문이 시작된다. 마른 뼈 무더기에 잘라진 신 까닭을 물었을 때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의 어버이일 것이므로 예배한다는 부처님의 대답은 사뭇 감동적이다. 이 세상에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니까.

러 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은중경>은 효행의 지침서이다. 본문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백천 개의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번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다만 보답하는 길은 부모를 위해 <부모은중경>을 서사(書寫)하며,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모를 위해 죄업과 허물을

참회하는 불교의 회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기적인 관계속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용서하는 자비의 정신이 부모의 한량없이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효행의 근원이다. 나만 존재한다는 아집과 아만을 버릴 때 부모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이 우러나는 까닭이다. 어찌보면 정조대왕이 <부모은중경>의 판본을 만들어 용주사에 봉안한 것도

자식들이 저지르는 불효 예들어 경계 효행의 지침서... "참회하고 회향하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살하는 경전'이라는 뜻의 <부모은중경>은 <불설 부모은중경>이 원제이다. <부모은중경>만큼 부모의 슬픔과 사랑을 깊이있게 이야기한 고전은 없을 것이다. 이 경을 통해 부처님은 효의 윤리와 인간의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자애의 마음은 한량 없는데 자식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효와 불의를 일삼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 경전에서는 자식들이 저지르는 불효를 가지가지 예를 들면서 꼬집고 있다. 부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꾸짖는 것처럼 느껴진다.

'죽어서 헤어짐도 슬프고 괴롭지만 살아서 헤어짐은 더욱더 서러워라. 자식이 집을 나가 먼 길을 떠나가니 어머니 모든 생각 타향에 나가있네' 열가지 큰 은혜 가운데, 먼길 떠난 자식을 열려하고 걱정하시는 은혜를 탄식과 슬픔이 애잔하게 와 닿는다. 더군다나 출가사문의 길을 걷고 있는 나로서는 몸뚱이를 바를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자은(慈愍)이 있다면 어머니에게는 비은(悲憫)이 있습니다. '양자식지력(養自患知力)'이라는 말이 있듯 누구나 자식을 낳아 길

이러한 불교적 효행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부모은중경>은 그 내용이 짧은 경전이므로 누구나 쉽게 독송할 수 있고 자신의 효행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더군다나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내 경우에는 기도를 회향할 때 마다 <부모은중경> 사경(寫經)을 꼭 한다. 관공은 모시지 못하더라도 사경 본 만큼은 모시자는 생각에서다. 출가의 정신은 적극적인 효의 실천이지만 수행이 따르지 못하면 더 큰 불효의 그림자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불교적인 자각으로 효의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교에서는 효의 범위를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일체중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혈육지정의 효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구제하는 대승적인 효를 지향하라는 뜻이다.

효의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는 오늘날 다른 어떤 경전보다 <부모은중경> 신앙은 절대적이다. 모두가 <부모은중경>의 마음으로 돌아가 귀한 생명을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진정한 효심이라 믿기 때문이다.

“죄 짓고나서 기도한다고 없어나요 기복보다 이웃위한 신행 앞장서세요”

니다. 누가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교는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중심의 사고에서 전체를 인식하는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내가 흉하거나 망하는 것이 곧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고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정법선양은 그 시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퍼나갈 때 그 가르침이 소용이 있는 것이지 올바르게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이 한창일 때 성철스님, 청담스님께서 앞장서서 활동하실때 심부름 하느라 고열심에 따라 다녔습니다. 그때 도교의 유물인 산신각을 때려 없애자

만 질의 세계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을 뿐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가 나쁘다 해도 진리는 진리이고 세상이 좋다고 해도 사범은 사범입니다. 그러할 명백한 것이 진리의 존재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를 살리고 내가 살려면 우선 전하를 구하는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법화경> 속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 길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껏 개인적인 기복에 익숙해 있는 우리 풍토에서 이런 말 하자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안하면 안되겠기에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으로 가피를 받고 있는 것이라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

전체를 살리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법화경>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 서울 인사동 고서점에서 "호랑이 잡는 법화경"이라는 말을 듣고는 없는 돈을 빌려서 <법화경>을 구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반걸이쯤 읽을 때 떠나지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불교의 세계가 늘 상 화두로 잡혀있었나 봅니다.

울산고등학교 교감시절이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 범어사로 수학여행을 인솔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산스님을 친견하고는 그자리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길 이 내 길이다 확신이 섰던거지요. 그래서 자식도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은사 동산스님 덕분에 나는 출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사스님은 출가도 이끌어주었지만,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또 나의 앞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형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불교에 사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 임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임예방 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하는 효력이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